

# 한국어의 공동체 문화적 특징 연구\*

##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 朱明爱 李珂 |<sup>(1)</sup> 山东大学 |

**[摘要]** 本文着重分析韩国语中体现的儒家共同体文化。因为韩国是传统的儒教国家，直到今天其儒家文化特征依然十分明显。本文的分析不仅有助于理解韩国语的文化特征，还有助于更有效地学习和研究韩国语，全面了解以共同体文化为特征的韩国社会和文化，有助于深入探究韩国人的思维方式和交流沟通特点。

**[关键词]** 韩国语；共同体文化；儒家文化

### 1. 문제 제기

문화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규정해 주는 관습이며 생활 방식의 총체이다. 에드가 쉐인(Edgar Schein)은 문화를 사회 집단 또는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가정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집단이나 조직체는 그 자체가 공유하는 가치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이 구성원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여야 하듯이, 개인들도 집단의 이익과 조직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세를 공동체의 식이라고 한다.

공동체 문화는 생산력이 낙후한 전통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기도 하다. 과거에 사람들은 공동의

주거형태를 취했고 생활 기물이나 도구는 모두 집단의 소유였으며 식생활도 단체적으로 영위했다. 특히 주자성리학이 조선에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유교 공동체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하지만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한 시기에는 유교 문화가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주류를 차지한 적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해체’나 ‘공동체의 위기’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이 예전에 비해 다소 약화되고 개인의식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의(仁義)와 충효(忠孝) 등의 유교적 가치와 그에 입각한 가족과 친족관계 등을 포함한 유교 문화적 특성은 전통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sup>(3)</sup> 따라서 현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자기 정체성은 유교의 전통적

가족 중심 문화와 서구의 근대적 개인주의 문화가 혼합된 상태에서 개인과 집단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변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4)</sup>

특히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히 근대화되고 서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문화가 어떠한 의미로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유교 문화를 산업 사회의 도덕적 폐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안적 규범으로 보면서 긍정적 역할을 부각하는 주장까지도 나오게 되었다.<sup>(5)</sup> 따라서 오늘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도 유교 공동체의식은 한국인들의 의식 저변에 여전히 깔려 있으며 한국인의 특유한 문화적 특징으로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주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동일한 취미 생활, 동일한 관심 분야, 동일한 목적의식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 학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학연 공동체로, 동일한 취미, 관심 분야나 목적의식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대안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 외에도 학연 공동체, 대안 공동체의 역할도 날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는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왜냐 하면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를 배제하고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

은 불가능한 일이다. 언어는 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각이 형성되는 범주를 구축하는데 그 자체가 문화이기도 하며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언어는 문화적 양상이나 특징을 어느 정도 혹은 어느 측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문화 또한 언어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문화적 차원에서 언어 사용의 양상이나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공동체의 문화적 특징은 그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분석한 벤자민 워프(Benjamin Whorf, 1897-1941)는 언어는 특정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상징적 체계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놀랄 만한 것이 못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언어는 단지 사람의 생각을 주고받는 기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각의 형성틀(Shaper of ideas)인 것이다. 즉 언어학적으로 상이한 사람들은 다르게 의사소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은 한 가지 현상에 대하여 다르게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3,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인도에만 해도 약 150여개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언어는 다양한 문화 특징을 보여 주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공통적인 문화적 특징 하에서도 상이한 언어 체계가 형성될 수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이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인류학자 홀(Edward T. Hall, 1976)에 의하면, 문화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체계이며 언어는 한 국가의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는 언어들은 맥락(context)의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문화를 넘어서』에서 소통문화를 고맥락(high-context)문화와 저맥락(low-context)문화로 나누어 제시하여 상황이나 배경과 같은 맥락이 의사소통 과정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홀이 제시한 고맥락-저맥락 레벨에 따르면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표적인 고맥락 문화권으로 분류되고 미국, 독일 등 서구권 국가들은 저맥락 문화권으로 분류된다.<sup>(6)</sup> 고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 과정 중 언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전달되는 배경이나 상황 즉 맥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에 속하는 한국문화는 한국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문화 중에서도 특히 공동체 문화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로서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필자의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현재까지 한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 연구나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 연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매우 많이 있었다. 특히 언어학이나 문화학적 시각으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접목시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어의 문화교육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즉 한국어 언어 교육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문화의 범주는 매우 모호하며 광범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라는 개별성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 하지만 문화교육의 범주나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작업들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교 문화와 한국어를 접목시킨 분석은 아직 매우 미흡한 것 같다. 예

를 들면, 김용성, 이춘자(2001)의 “한국의 유교 문화와 한국어: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국제한국학회(2002)의 『한국문화와 한국인』, 전혜영(2002)의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특성”, 임태섭(1995)의 “정, 체면, 연출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김장이(2006)의 “한국형 감수성 훈련 모델의 개발”, 김정은(2010)의 『한국인의 문화 간 의사소통』 등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방대한 유교 문화를 거시적 시각에서 한국어와 접목시킨 분석들인데 유교 문화의 범주에 대한 규명도 아직 불분명하고 나름대로 상이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유교 문화가 한국인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 또한 다들 유교문화를 한국인의 의사소통과 사고방식의 근본이 되는 문화적 요소와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유교 문화와 한국어”(2011)와 “한국어의 유교 문화적 특징: 예의 문화를 중심으로”(2013)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유교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재정립한 바 있다. 또한 일전에는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가족주의 문화적 특징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의 유교 가족주의 문화의 형성, 변천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어에 반영된 가족주의 문화적 특징도 함께 고찰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대한 유교 문화의 체계 중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유교 공동체 문화를 한국어와 접목시켜 고찰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 공동체 문화도 유교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국 문화의 주 특징으로 자리 잡고 오늘날까지 지속해 왔으며 또한 한국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유교 공동체 문화를 한국어와 접목시켜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

으며 그 현실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본문은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공동체 문화적 특징을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어의 특징과 한국인의 사고방식 및 의사소통 특징을 함께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공동체 문화 및 그 원인

### 2.1 기존의 어휘 표현

한국은 단일 민족의 국가로서 동류의식, 공동체의식은 예로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어휘로는 ‘소거리, 품앗이, 보계, 황두, 두레, 울력, 계’ 등이다. 이는 예로부터 전해진 농사일과 관련한 공동 노동조직인데 그 가운데서 보계, 황두, 두레, 울력 등은 마을 범위에서 조직, 운영된 것이다. 봉건사회에서는 개인 소농경리의 영세성과 농사의 특성 때문에 이웃 간에 공동노동조직을 맺어 힘을 합쳐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동의 노동조직을 형성하여 함께 농사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거리, 품앗이, 보계, 황두, 두레, 울력’ 등은 점차 그 자체의 역할을 상실하면서 해체되기 시작하는데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계’는 오늘날 도시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행되고 있는 친목회로 알려지고 있다. ‘계’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되는 결사체이다. 그 목적과 구성원수에 따라 다양한

‘계’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강릉에서는 예로부터 친족이나 지역 주민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사체인 ‘계’가 발달하였다.

한국어의 언어체계는 자아의식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자아’에 대한 가치는 ‘나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는 흔히 ‘무아의 언어’라고도 한다.<sup>(7)</sup> 즉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인 것이다. 한국어에서 ‘우리, 저희, 너희’ 등 어휘는 공동체의식을 여실히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소유보다는 한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의 공동 소유로 인식되는 것들 앞에서는 ‘우리, 저희, 너희’ 등의 복수 대명사가 쓰인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수 대명사 ‘내, 제, 네’를 사용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집, 학교, 회사 등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비록 집, 학교, 회사가 특정 개인의 소유일지라도 ‘나의 집, 나의 학교, 나의 회사’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자연스럽다. 이때의 ‘우리’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sup>(8)</sup>

한국인들은 ‘나의 남편, 나의 마누라, 나의 아이’도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우리 아이’로 표현한다. 이때는 여러 사람과의 관련성이나 공동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특정인의 소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sup>(9)</sup> 즉 비록 이때의 ‘우리’는 소유격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대신하는 기능, ‘나의 소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기능’만 하고 있지만, 언어속의 공동체 소유 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

체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강조되며, 개인의 가치는 다만 공동체 가치 속에서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특정의 개인에게 돌리기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은 흔히 “민을 짓은 가족뿐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곧 사실 한 개인이 불행을 당했을 때 의존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뿐이라는 뜻이다.<sup>(10)</sup> 이것은 오늘날 한국 현실이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주 특징의 하나로 가족주의는 곧 유교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 특징인 것이다.

한국의 공동체에서는 집단의 목표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소집단 내의 우리의식과 우리의 관계 유지가 행동의 준거가 된다. 흔히 “한국의 조직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을 한다. 이는 공식적인 구조와 의사소통 양식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통한 일처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보다는 조직 내 구성원들끼리 연결되는 사적 연결망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잘 됨을 비꼬는 표현이다.<sup>(11)</sup> 이러한 표현은 한국적 공동체주의가 지닌 관계주의적 특징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남남 사이지만 흔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깊은 함의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관계를 친족화하는 경향이 많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한국에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사이트도 있을 정도로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투자증권’ 등

이 있는데 이런 명칭은 모두 한국인의 ‘우리의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에 반영된 공동체 문화적 특징은 강한 ‘우리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의식’이란 곧 공동체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인들은 언어의 사용에서 ‘우리’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데 이것은 오래도록 친족집단이나 동족집단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몸에 배인 데서 오는 것이다. 한국어에 친족을 호칭하는 말로서 동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구별이 없는 경우가 많다.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친어머니는 애매할 때가 많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인들의 조상이 친족집단과 동족집단에서 오래도록 공동생활을 하였다는 흔적일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의 것보다는 우리의 것이란 언어습성이 형성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랜 역사 시기를 거친 단일민족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식’도 지속한 역사적 경험을 겪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나의 것과 우리 것과의 한계가 애매해지고 고대의 언어습성은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주변의 강대한 민족의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견고한 ‘우리의식’이 필요했으리라고 본다.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결을 위한 유대의식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이런 유대의식은 ‘우리의식’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유독 ‘우리’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언어습성은 근대화한 오늘의 민족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2.2 신조어 표현

한국인은 공동체를 매우 중요시하며 대인 관

계의 단절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긴다. 때문에 한국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형벌은 개인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주는 현대 한국어 신조어 어휘가 ‘왕따’이다.

‘왕따’는 한국어의 ‘따돌림’이라는 어휘의 신조어인데 주로 학교나 직장 등과 같은 단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내의 ‘왕따’에 비해 학교 내의 ‘왕따’ 현상이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왕따’ 실상이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지난 2012년의 4만 6954명으로부터 2018년의 12만 2212명으로, 3배 정도 늘었다. 결혼 이주민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도 적지 않으며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여성가족부가 2016년에 발표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9-24세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1812명 중 5.0%가 학교 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로 응답한 피해 유형을 보면 협박·욕설(65.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 따돌림(34.1%), 인터넷 채팅·이메일 등으로 욕설과 비방(10.9%), 손·도구로 폭행이나 감금(10.2%), 돈 등을 빼앗기는 갈취(9.5%), 심부름 등 괴롭힘(5.3%), 성희롱 및 성추행·폭행(2.8%) 등의 순이었다.

‘왕따’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말이 서툴고 외모가 다르다는 것에서 괴롭힘이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고민을 부모나 친구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 폭력을 당한 다문화 가정 학생 중 3분의 1이 참

거나 그냥 넘어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결론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는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쇠퇴했고 개인의 존재가 묵과된 채 집단의 이익만 강요하던 시대로부터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 공동체시대로 변화해왔다. 이는 다른 차원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념으로나 실제 모습에서 날로 유연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 소외 현상이나 삭막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되며 현대 사회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낄 때도 있다. 경쟁과 이익 추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통적인 공동체는 지속되기 어렵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욕구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신뢰, 호혜성, 친밀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적인 경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망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성과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화의 물결에 저도 모르게 동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사람들 역시 공동체의식과 개인의식이 동시에 강조되는 문화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고독’을 느끼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여전히 공동체의식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우리’라는 한국어 표현을 자주 쓰면서 또한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어의 이러한 유교 공동체 문화적 특징도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며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오 교수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집단을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강한 이기주의가 여전히 강한 연고주의와 계속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sup>(13)</sup> 따라서 한국인 역시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상호 작용에 기반을 둔 신뢰, 규범, 연대와 같은 가치들이 강조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교적 공동체 문화의 위계질서는 흔히 소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또한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어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생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은 소속 공동체에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선을 위해 비록 개인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수 있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공동체의 리더가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의식과 연대의식을 잘 활용하고 개개인의 사적이익과 공동체의 공공의 선을 효과적으로 잘 접목시킨다면 개개인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적이익과 공공의 선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문화적 우수성을 잘 살리면서도 개개인의 가치가 중시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주석

\* 本文为山东大学自主创新项目“韩国语的儒家文化内涵研究”(项目编号: IFW12026)的阶段性研究成果。

- (1) 朱明爱, 山东大学外国语学院副教授。第二作者: 李珂, 山东大学外国语学院硕士研究生。
- (2) Edgar H. Schein,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2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2(5).
- (3) 심백섭, 「한국 유교 문화와 가족」, 『종교학 연구』 24집,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54.
- (4) 조옥라 외,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내재된 전통과 근대의 문제: 집단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1), 2003:3-5.
- (5) 이광세,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 도서출판 길, 1998.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 나남출판, 1998.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서울: 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1999.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449, 재인용.
- (6) 최지지, 「한국 언어문화의 고맥락 문화적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11.
- (7) 张优, 「韩国文化对韩语话语规则的影响」, 『河南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25卷第2期, 2007: 67.
- (8) 최동주, 「한국어 대명사 ‘우리, 저희’와 ‘너희’의 단수적 용법」, 『근현대 동아시아관계의 변화와 인본주의』, 북경: 민족출판사, 2010:475.
- (9) 최동주, 「한국어 대명사 ‘우리, 저희’와 ‘너희’의 단수적 용법」, 『근현대 동아시아관계의 변화와 인본주의』, 북경: 민족출판사, 2010:477.
- (10) 강내의, 『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치: 문화사회를 위한 비판적 문화연구』, 서울: 문화과학사, 2002:112.

- (11) 한규석, 최상진,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파주: 세계절출판사, 2002:188.
- (12) 이상억,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 소통, 2008:328.
- (13) 김정오,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인가 위기인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481, 재인용.
- (14) 김원열, 『동북아시아 유교의 전통과 현대』,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196.

### 참고문헌

- [1] 강내의, 『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치: 문화사회를 위한 비판적 문화연구』, 서울: 문화과 학사, 2002.
- [2] 국민호, 『동아시아 발전과 유교 문화』,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 [3] 금장태, 『유학사상과 한국 사회』,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4] 금장태, 『한국유교의 현실인식과 변혁론』, 서울: 집문당, 2006.
- [5] 김성국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2003.
- [6] 김수중 외, 「공동체란 무엇인가」, 서울: 이학사, 2002.
- [7] 김원열, 『동북아시아 유교의 전통과 현대』,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8] 이상억,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 SOTONG출판사, 2008.
- [9]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10] 강정인, 「세계화·정보화와 동아시아문명의 문화정

- 체성: 서구중심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2.
- [11] 계재광, 「유교 문화가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유교의 권위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한국실천신학회, 2010.
- [12] 김광억, 「국가와 사회, 그리고 문화: 가족과 종족 연구를 위한 한국 인류학의 패러다임 모색」, 『한국문화인류학』 35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 [13] 김용학, 「한국 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김성국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2003.
- [14] 김태만, 「유가의 가족주의와 아시아의 근대화」, 『대구사학』 제61집, 대구사학회, 2000.
- [15] 심백섭, 「한국 유교 문화와 가족」, 『종교학연구』 24집,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
- [16] 이동일, 「공동체에 있어서 유교적 가치의 함의」, 『동양사회사상』 제4집, 동양사 회사학회, 2001.
- [17] 조옥라 외,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내재된 전통과 근대의 문제: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3.
- [18] 최동주, 「한국어 대명사 ‘우리, 저희’와 ‘너희’의 단수적 용법」, 『근현대 동아시아관계의 변화와 인본주의』, 북경: 민족출판사, 2010.
- [19] 최지희, 「한국 언어문화의 고맥락 문화적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0] 한규석, 최상진,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한국문화와 한국인』, 국제한국학회, 파주: 세계절출판사, 2002.